

순천 시민들, 도시계획 직접 짠다

시, 시민이 참여하는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30일까지 계획단 모집...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도

순천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순천시는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방식을 탈피해, 삶터에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토대로 시민들의 열정과 창의력을 조직화해 누구나 공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은 '공문화-의견정취-확정' 과정의 3단계를 거친다. 시는 지난달 25일 공무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1일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공개 모집하며 공론화 과정을 시작했다. '시민계획단'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순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30일까지 도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자체 심사를 거쳐 시민계획단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의견정취 단계로 지난 2일부터 24개 읍면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권역 있는 도시계획전문가가 진행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의응답,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의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아이디어공모, 시민설문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 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고 시민계획단과의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전문가단체에 자문해 기본구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은 기존 기본구상(안) 수립 후 공청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시민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계획단, 권역별 순회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으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누구나 읍면동 문의를 통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시민계획단 신청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으로, 건축정책·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 등 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포괄하고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도심 속 '사나래 유아숲체험원' 개장

여수에 도심 속 생태 학습공간 '사나래 유아숲체험원'이 문을 열었다. (사진)
여수시는 선원동 도원초등학교 인근에 사나래 유아숲체험원 개장했다고 밝혔다.



사나래 유아숲체험원은 ▲하늘을 나는 듯 짜릿한 모험심을 자극하는 '하늘숲' ▲으샤샤! 뱃줄놀이를 하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놀이숲' ▲하하호호 자연과 교감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모임숲' 등 크게 3가지 체험공간으로 구성됐다.

체험시설로는 숲슬라이더, 모래놀이터, 짚라인, 유아산림욕대, 전망데크, 산책로 등이 조성됐고, 편의시설인 화장실도 마련돼 있다.

내년 2월까지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월부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여수시에서는 미평 산림욕장과 가사리 유아숲체험원에 이어 사나래 유아숲체험원이 세 번째로 개장했다.

프로그램 예약과 문의는 여수숲해설가회(061-681-4276)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림과(061-659-4613)로 연락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아기상어 게 섰거라~ 'BS 삼총사' 나가신다

보성군,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 뮤직비디오 공개

보성군이 지역 농특산물 캐릭터 주제곡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보성군은 지난 9일 보성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특산물 캐릭터 주제곡 'BS삼총사 송'과 캐릭터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전국민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11일까지이며 오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방법은 BS삼총사 뮤직비디오를 보고 마음에 드는 가사 한 구절과 응원 댓글을 보성군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달면 된다. 당첨자는 총 90명을 선정하며, 캐릭터를 형상화한 보성 특산물 벌교꼬막(30명), 보성키위(30명), 보성녹차(30명)를 선별한다.

보성군은 지난해 BS삼총사 주제곡 제작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캐릭터 송 공모전을 실시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양진영 씨의 출품작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BS삼총사 주제곡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성군은 선정작을 바탕으로 편곡 과정을 거쳐 주제곡을 완성했으며, 올해 11월 9일 공모전 수상작을 주제곡으로한 BS삼총사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보성군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는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보성녹차, 벌교꼬막, 보성키위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2020년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적인 지자체 캐릭터계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보성군은 BS삼총사 캐릭터 대상 3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22일 BS삼총사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모티콘은 선착순 3만 5000명에게 배포되며 카카오톡에서 보성군청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KTX 이음’ 광양역 정차 꼭 이루어냅시다”

주민·단체 등 캠페인 실시 순천~부산 시속 260km 열차 내년 상반기 정차역 확정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의 광양역 정차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지난 9일 인동로터리에 서 지역 내 20개 및 주민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KTX-이음 광양역 정차와 확대 운영을 염원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KTX 이음(EUM-260)은 경전선 순천에서 부산까지 남부권 동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속 260km의 고속 열차로, 내년 상반기에 정차역이 확정되고 하반기에 운행될 예정이다.

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돼 접근성이 불리한 광양시는 부산과 서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광주와 목포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열차 정차에 15만 시민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양읍은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 세풍·익산·초남 등 산업단지 기업 유치, 진행되고 있는 18개 단지 공동주택과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정차를 유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중호 광양읍장은 "KTX 이음 광양역 정차는

광양읍권 부흥의 마중물로 5만 광양읍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이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광양시 옥룡면 각 기관·사회단체가 광양농협 옥룡지점 앞에서 주민 100여 명의 참여한 가운데 민원의 염원을 담은 KTX 광양역 정차 및 확대 서명운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최근 경전선 순천-부전(부산) 간 KTX-이음 국토교통부의 운행계획에 따라 경전선 모든 열차의 광양역 정차를 염원하는 시민의 열렬한 바람을 담아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전 시민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삼식 옥룡면장은 "전남의 산업·경제 중심지이며 광양만큼 거점역인 '광양역'에 반드시 정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확대 운행 운동에 전 민간의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곡성군,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 '최우수 기관'

곡성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개최한 2022년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농진청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등 농가 경영 개선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평가는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로 나눠 진행됐으며 ▲강소농 사업 추진 성과 ▲경영개선 공동체 참여 ▲청년 강소농 육성 ▲사업예산 집행 실적 ▲강소농 사업 홍보 실적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역량 강화, 청년 강소농 육성, 강소농 자율모임체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농 기본 과정과 전문 과정을 구분해 강소농 교육을 실시한 것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대 기자 pjit@kwangju.co.kr

곡성군치매안심센터, 실종노인 예방 배회감지기 대여

곡성군치매안심센터가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 감지기를 무상 대여한다.

배회 감지기 무상 보급은 보호자가 있으면서 곡성군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센터에서는 전용 단말기 지급은 물론 감지기 이용에 소요되는 통신 요금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먼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한 후 대상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배회감지기는 손목형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다. 보호자는 배회감지기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필요 시 응급 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SOS 호출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또 곡성군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실내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추가로 구입해 보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치매안심센터(061-360-898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박종대 기자 pjit@kwangju.co.kr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3개 창단

환경보호·안전교육·문화체험 등 46개 봉사단 활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 직원들이 특 특 튀는 생각과 재능을 모아 신규 봉사단 3개를 창단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최근 ▲자원순환 플라스틱 बैं크 가족 재능봉사단(단장 장형준) ▲여기 저기 SF(Safety First) 위캔(we can) 재능봉사단(단장 형성환) ▲반짝반짝 우리&캔들 공예 재능봉사단(단장 백승현)이 창단했다.

광양제철소 직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각종 봉사단을 창단해 지역사회 및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신규 봉사단 3개를 더해 총 46개의 봉사단이 재능과 좋은 생각으로 지역사회를 돕고 있다.

제철소 임직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모인 것으로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왔다. 신규 재능봉사단은 각각 환경 보호, 안전교육, 문화 체험 분야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원순환 플라스틱 बैं크 가족 재능봉사단"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모여 만드는 큰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병뚜껑 등을 업사이클링해 차약짜개, 비누 받침 등을 만들어 기부하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나눔 재능봉사단이다.

"지역사회 여기저기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앞세워 창단한 '여기저기 SF(safety first) 위캔(we can) 재능봉사단'은 포스코의 안전 지식을 접목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반짝반짝 우리&캔들 공예 재능봉사단"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과 지금을 만들어 준 실버 세대에게 글라스아트, 전자지공예, 캔들공예와 같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예정이다.

장형준 자원순환 플라스틱 बैं크 가족 재능봉사단장은 "광양제철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제가 가진 플라스틱 재활용 지식을 활용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기쁘다"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은 광양시와 간담회를 갖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개의 신규 재능봉사단도 광양시 금호동 나눔 스킨 2층 회의실에서 만나 지역 이웃들을 향한 나눔 실천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 개강

구례군 '주민 소득창출 기여'

구례군이 주민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구례군은 지난 10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지역주민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는 2020년에 선정된 구례읍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11월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총 5회로 구성되며, 구례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교육장에 별도의 실습용 가벽을 설치했으며 신한국&서초토목건축학원 이학노 원장을 초빙하여 도장(페인트)에 대한 실습 위주의 실용성 높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공구, 전기, 목공, 단열, 방수, 타일, 도배, 장판 등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자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도시재생 집수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